

한국어교육 제3의 중흥기에 돌아본 교육 현황과 해결 과제

최정순 배재대학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학과(jschoe@pcu.ac.kr)

* 이 논문은 몽골 국립대학교 개교 70주년 기념 한-몽 국제학술대회/한국 국어교육학회 제 1차 국제학술대회(2012.06.26~27)에서 발표[주제발표]한 것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 I. 서론
- II. 한국에서의 한국어교육 실태
- III. 한국어교육의 과제 및 제언

I. 서론

최근 한국어교육은 한류 및 K-Pop의 영향으로 제3의 중흥기를 맞고 있다. 이는 2011년 문화체육관광부 주최의 세계한국어교육자대회¹와 같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참가자들은 한결같이, 드라마와 영화로 대표되는 한류와 K-Pop 덕분에 한국어 학습자가 늘어나고 있다고들 말한다. 이러한 이유의 진위를 떠나 현재 국내외의 한국어 학습자 수가 크게 늘어난 것만은 사실이다.

이에 힘입어 한국어교육 역시 양적인 확장 및 발전을 이루어 냈다. 학부에서 한국어교육학을 전공할 수 있는 대학이 20여 개를 넘었고, 대학원 역시 80여 개에 달한다.² 세종학당은 2012년 9월 현재 43개국 90개를 설립했

1 2012년 8월 22일부터 24일까지 '제4회 세계한국어교육자대회'가 개최되었다.

2 학부 졸업생은 매년 300명을 상회할 것으로 추측되며, 대학원은 2011년 한 해에만 600여 명 이상이 석사학위를 취득했고, 교육대학원 등 특수대학원에서 학위논문을 작성하지 않고 졸업하는 수를 고려하면 700~800명에 달할 것으로 파악된다. 그 외 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 수강을 통한 자격증 취득자까지 포함하면 1,000명을 훨씬 상회할지도 모르겠다.

고, 매년 30개소 개설을 목표로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³ 하지만 과연 이에 비해 우리 한국어교육의 질적인 성장이나 발전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한 앞으로도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한지, 문제점은 없는지 살펴보고, 나아가 문제점 극복 및 발전 방안에 대해서 모색하는 등 진솔한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고는 한국어교육의 과거와 현재를 들여다보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지향점을 제언하는 내용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II. 한국에서의 한국어교육 실태

1. 한국어교육의 성장 과정

국내 한국어교육의 성장에 대해서는 한국어 학습자 수요층의 증가에 따른 한국어교육기관의 증가라는 측면과 교과학으로서의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학’⁴ 및 전공학과와의 성립과 발전이라는 두 축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한국에서의 한국어교육은 1980년대 후반을 기점으로 1차 발전기를 맞

3 2012년 5월 국어기본법 및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어 2012년 10월 24일 ‘세종학당 재단’이 설립되어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국내외 한국어 보급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4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학은 현재 학부과정에는 학과명에 ‘교육’이라든지 ‘교육학’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데에 어느 정도의 제약을 갖고 있기에 목포대학교와 대구대학교 등 몇몇 대학교에서 ‘국제한국어교육학과’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원의 경우는 이러한 제약을 받지 않아 교육대학원의 경우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전공’이라는 명칭이, 일반대학원의 경우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학과’라는 명칭으로 통일되어 사용되고 있다. 발표자는 지난 발표(한국국어교육학회 주제 발표, 2012년 6월 16일)에서 한국어학습자 집단의 다양화에 따라 이제까지의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학’의 명칭에 대해 국제결혼 이주 여성 및 다문화가정 자녀 대상의 한국어교육을 전제로 ‘한국어교육학’이라는 명칭으로 전환하여 통일하자고 제안한 적이 있다.

고,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2차 발전을 맞았다고 할 수 있다. 1차 기점은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올림픽이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이는 한국어교육기관 수의 증가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 1986년 이전의 국내 한국어 교육기관은 1959년에 설립된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1963년에 설립된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가톨릭 수도회에 있던 명도원⁵ 정도가 전부였다. 그러다가 1987년 고려대학교, 1989년 이화여자대학교, 1990년 서강대학교, 1993년 경희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등 수도권 대학을 중심으로 확산되어 갔다.⁶

이 과정에서는 단지 한국어교육원 설립만이 확대된 것이 아니라, 이와 더불어 한국어교육을 전공하여 추후 한국어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교사 양성 과정이 등장하기 시작한다. 한국어 교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설은 향후 한국어교육 전공학과와도 관련이 있기에 잠깐 언급하고자 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80년대 후반부터 한국어 학습자 수는 급증하기 시작했고 교육기관들이 개설되면서 한국어 교사의 수요 역시 증가했으나 공급을 위한 체계나 학위과정 등은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1990년 12월에 서강대학교 한국어교육연구소에서 단기양성과정을 처음 개설하였고, 이어서 1994년에 연세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에 ‘한국어 교사 연수소’가 개설되었다.⁷ 이후 고려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등의 한국어교육기관에

5 한국 프란치스코회가 1965년에 정동에 본부 수도원을 세웠고, 이 수도원에 ‘명도원(明道院)’을 설립하여 외국인 선교사를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쳤다. 충북 청주 사천동에 성심양로원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경로수녀회 소속 수녀님들도 이 명도원에서 한국어교육을 받았다는 기록이 있다. 1990년대 초반까지 명도원 명의의 한국어 교재를 시중에서 볼 수 있었다.

6 한국어세계화재단 홈페이지(<http://www.glokorean.org/>) 제공 자료 기준 국내 한국어 교육기관 수는 173개, 단기양성과정 개설 수는 2012년 4월 현재 146개소로 통계되어 있지만, 이보다는 훨씬 많을 것으로 예측된다.

7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한국어 교사 연수소 홈페이지(<http://www.ysitkli.com/about.htm>) 참조.

서 단기양성과정⁸이 개설되기 시작했고, 2012년 현재 100여 개를 훨씬 넘어서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국어 교원 양성을 위한 정규 교육과정은 1980년대 초반에 이화여자 대학교 대학원에서 한국학과가 개설되면서 그 발판이 만들어졌다. 이후 동일한 과정이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1983년 1학기에 개설되어 1984년까지 운영되었으며, 도중에 잠시 중단되었다가 1997년 2학기에 다시 재개설하게 된다. 학부과정으로는 1999년에 경희대학교 수원 캠퍼스 외국어대학 동아시아학부에 처음 한국어전공이 만들어지면서 한국어교육 전공을 개설하였고, 2003년에 계명대학교 한국문헌정보학과와 하위전공 중 하나로 한국어교육이 생겨났다. 2004년에는 배재대학교에 독립전공학과로서는 처음으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학과’가 개설된다. 이후 전국적으로 여러 대학교에서 정규과정이 만들어져 2012년 현재 20여 개 정도의 대학에 학부과정이 생겨났고, 80여 개 대학의 대학원에서 한국어교육을 전공할 수 있게 되었다.⁸ 이러한 현상은 현실적으로 매우 놀라운 발전 속도라 할 수 있으며, 한편으로는 많은 문제점을 낳기도 하였다.⁹

2. 한국어 학습자 현황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어교육학 분야는 짧은 시간 동안 큰 발전을 이루었다. 이렇듯 한국어교육이 발전할 수 있었던 데는 한국어 학습자 수의 증가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1988년 서울올림픽, 2002년 월드컵 개최 등을 통해 한국은 세계에 알려지게 되었고, 한국 및 한국의 언어와 문화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의 수가 급증하기 시작했다. 1990년대 초반, 당시 한

8 강승혜(2011: 86)에 따르면 2011년 현재 교육대학원에 26개, 일반대학원에 45개의 과정이 개설 운영되고 있다고 하였다. 본고의 수치가 10여개 더 많은 이유는 유사 학과에서 한국어교육 관련 주제를 학위논문으로 다룬 경우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9 이에 대해서는 III장에서 간단하게 다루고자 한다.

국어 학습자 수는 서울대, 연세대, 이화여대, 고려대, 서강대 등 대학기관과 광화문 소재 LTRC(Language Teaching and Research Center)와 같은 민간 기관에서 공부하던 학생을 모두 합하여 1,000명을 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던 것이 20여 년이 지난 2011년 1월 현재, 한국어 학습자 수는 급증하여 유학생 수가 86,947명, 결혼이민자 211,458명, 외국인 근로자 552,946명 등 851,351명이나 된다.¹⁰ 물론 이들 숫자가 정기적이고 집중적으로 한국어를 학습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그 수의 증가 폭은 가히 폭발적이다. 짧게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개년 간의 증가 추세를 봐도 그 신장 폭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다.¹¹

- 10 통계청 자료(KOSIS 국가통계포털) ‘지자체별외국인주민현황(2011년 1월 현재)’ 참조.
 11 2007년부터 2011년 1월까지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 자치행정과에서 조사한 ‘지자체별 외국인주민 현황’ 중 한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의 수는 다음과 같다.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2007년의 자료는 나와 있지 않았다. (유학생 통계는 2011년 하반기의 자료가 있기는 하나, 다른 집단의 통계자료가 2011년 상반기 자료만 있어 형평성을 맞추고자 상반기 자료를 제시하였음을 밝힌다.)

(단위: 명)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1
유학생	소계	-	56,279	77,322	80,646	86,947
	남자	-	29,599	39,031	39,923	42,232
	여자	-	26,680	38,291	40,723	44,715
결혼이민자	소계	126,955	144,385	167,090	181,671	211,458
	남자	15,121	16,702	17,237	19,672	22,878
	여자	111,834	127,683	149,853	161,999	188,580
결혼이민자 (국적미취득자)	소계	87,964	102,713	125,673	125,087	141,654
	남자	12,497	13,711	15,190	15,876	18,561
	여자	75,467	89,002	110,483	109,211	123,093
결혼이민자 (국적취득자)	소계	38,991	41,672	41,417	56,584	69,804
	남자	2,624	2,991	2,047	3,796	4,317
	여자	36,367	38,681	39,370	52,788	65,487
외국인근로자	소계	259,805	437,727	575,657	558,538	552,946
	남자	183,780	301,556	386,204	373,101	380,847
	여자	76,025	136,171	189,453	185,437	172,099

한편 급격한 학습자 수의 증가는 다양한 층위의 한국어교육을 요구하게 되었다. 다시 말해 학습자의 분포가 다양해지면서 이에 따라 한국어 학습의 환경이나 목적 역시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밖에 없게 되었다.¹² 한국어교육 학에서는 이러한 추세에 따라 학습 목적별 한국어교육방법론에 대한 연구, 교수법, 교재 등을 개발해야 했으며, 이는 결국 한국어교육학의 내적인 발전을 이끌어 내는 긍정적인 결과를 낳았다고 하겠다.

3. 한국어 교원의 양성과 관리 실태

한국어교육 기관과 학습자의 증가에 따라 한국어 교원의 수요 역시 늘어나게 되었지만 한국어 교원의 수요에 따른 공급이 원활하지 못했다.¹³ 그러다 보니 1990년대 중반 이후 많은 대학에서 대학원과정을 개설하였고, 대학 및 민간기관에서 한국어 교원 단기 양성과정을 거친 교사들이 대거 쏟아져 나왔다.¹⁴ 그러나 교육과정의 운영이나 자격 심사의 기준 등에서 몇 가지 문제점을 노출하였으며, 다른 한 편으로는 이러한 절차를 거쳐 양성한 교원

12 2012년 3월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2013년부터 초등, 중등, 고등학교 과정에서 정규과정으로 다문화가정 학생 대상 한국어 과목을 개설한다고 발표했다. 주 대상은 다문화 가정 학생, 중도취국자녀 등이 주요 대상자가 된다고 하는데, 이렇듯 한국어 학습자 집단은 실제로 광범위해지고 다양해졌다.

13 1990년 12월 서강대학교 한국어교육원에서 처음으로 단기양성과정이 개설되었다. 당시 학습자수가 증가하면서 한국어 교사 수요도 증가했으나, 한국어 교사를 양성하는 기관이나 대학은 없었기에 단기과정으로나마 양성하여 채용하고자 했다.

14 국립국어원 자료에 따르면, 2012년 9월 현재 한국어 교원자격증 취득자는 8,137명(1급 94명, 2급 4,033명, 3급 4,010명)에 이르렀다. 연도별로 보면 2006년 868명(2급 269명, 3급 599명), 2007년 639명(2급 185명, 3급 454명), 2008년 842명(2급 341명, 3급 501명), 2009년 1,037명(2급 613명, 3급 424명), 2010년 2,157명(2급 826명, 3급 1,331명), 2011년 1,809명(1급 81명, 2급 1,155명, 3급 573명), 2012년 9월(1급 13명, 2급 644명, 3급 128명)이다. 앞으로도 이 숫자는 늘어날 것이며, 2급 취득 후 5년이 경과되어 1급 자격증을 취득하는 사람도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에 대한 처우 및 관리는 처음의 기대와는 달리 여전히 불안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¹⁵

2005년 국어기본법과 시행령이 발표되면서 정부로부터 법에 의해 처음으로 ‘한국어를 외국인한테 가르치는 직업’에 대해 공식적인 인정을 받기에 이른다. 당시 대다수의 한국어교육 관련자들은 이러한 정책의 진행에 찬성을 했고, 법안 상정의 과정 중 최초 사용하려 했던 ‘한국어 교사’라는 명칭은 몇 가지 이유로 ‘한국어 교원’으로 바뀌었다. 또한 한국어교육은 ‘한국어의 국내 및 국외 보급’이라는 명분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국어정책의 일환으로 여겨졌고, ‘한국어의 세계화’라는 선언적 구호는 ‘교육’의 명분보다는 ‘보급’의 논리를 우선했으며, 한국어교육 분야에서는 ‘한국어 교원의 법적 지위 확보’라는 논리를 택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몇 가지 문제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한국어 교원의 자격 취득 기준과 절차, 그리고 명칭에 관한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한국어교육을 담당하는 ‘교원’들은 ‘학위제’와 ‘시험제’ 두 가지 방식에 의해 자격을 부여받고 있다. 학위제는 학사 혹은 석사 학위 취득을 통해 자격은 얻는 절차이며, 시험제는 각 대학의 부설교육기관을 통해 단기간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시험을 통해 합격을 하면 교원의 자격을 얻는 절차를 말한다. 그러나 과연 두 과정의 양립이 가능한가 하는 점에 대해 고려해 보아야 한다. 이 문제는 학위 취득 과정과 단기 양성 과정 사이에 존재하는 양적이고 질적인 교육과정의 차이가 크다는 데에서 비롯된다. 그리고 한국어 ‘교사’가 아닌 ‘교원’이라는 명칭으로의 구분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 한다. ‘교육’의 영역에서 ‘한국어교육’이 담당해야 하고, 담당할 수 있는 영역이 분명히 존재할 것임을 전제한다면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에 대한 구분이

15 이에 대해서도 아래에 간단히 배경을 살피고 문제를 제기한 후, III장에서 좀 더 깊이 있게 다루겠다.

‘교원/교사’로 구분될 일은 아니다.¹⁶ 한 국가의 자국어를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에 대해 담당 부서가 달라 자격을 부여하는 기준과 절차를 달리해서 구분한다는 것은 일반인들도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다.¹⁷

다음으로 한국어교육 전공 교육과정에 대한 문제점이다. 현재 ‘교육’을 담당할 ‘교원’을 양성하는 전공임에도 인접학문에 대한 소개나 학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소위 ‘교직 과목’ 등도 수강하지 않고 있다. 법에 의해 정해진 교과목만을 이수해야 하기 때문에 학습의 폭이 매우 좁은 것도 또한 문제이다. 그리고 특히 영역별 시수 및 학점수의 비교에서도 4영역인 문화, 문학 영역은 상대적으로 적어 의사소통적 접근법을 강조하는 현재의 상황과도 잘 맞지 않는다. 또한 외국어교육학이라는 특성으로 이론적인 접근만이 아니라 수업 참관이나 실습 등의 실제적 접근이 더욱 중요할 수 있는데 현재의 교육과정은 시수도 아주 적고, 참관이나 실습을 위한 최소한의 이수 조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몇 시간을 어디에서 참관하고 몇 시간을 어디에서 어떻게 실습해야 하는지 아무런 기준이나 지침이 없다.¹⁸ 이러한 점에서 볼 때 한국어 교원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에서의 전면적인 재조정이 필요하다.

16 이러한 구분은 실제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2013년부터 실시되는 초·중·고등학교에서 실시하기로 한 한국어 정규과목(KSL) 수업을 누가 담당하는 것이 효율적인가를 생각해 보자. 이들은 교사 자격증 소지자여야 하는가 아니면 한국어 교원자격증 소지자여야 하는가? 연령대별 교육이나 교직 이수 등을 전제하지 않은 한국어 교원이나 한국어교육학 등을 다루지 않았던 교육대학 및 사범대학 출신의 ‘교사’ 자격증 소지자 모두 제대로 된 자격을 갖추었다고 주장하긴 어렵다. 이 경우 현재의 상황에서 답을 찾는다면 ‘교사’ 자격증 있는 ‘교원’ 자격증 소지자 정도가 가능할 것이다. 아주 비효율적일 수 있다.

17 다른 국가의 자국어 교사 양성 및 관리 체계를 보면 우리나라처럼 철저하게 담당 정부부서가 다르고, 양성 과정이 다르고, 자격증이 다르게 분리되는 경우는 없다. 최정순(2011) 참조.

18 근래 On-line 교육 기관이나 학점은행제에 의한 기관의 증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상대적으로 수강 인원이 많은 이들 기관에서의 수업 참관이나 실습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등을 면밀히 검토해 봐야 한다.

마지막으로 재직 중인 교원의 재연수를 포함한 관리에 관한 점이다. 현재는 학위과정 혹은 단기 과정을 이수한 후 현장에 취업하여 교사로 활동하는 교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재교육/보수교육이 적절하게 공급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언어 교수 학습 이론은 꾸준히 발달하고 있다. 이에 따른 교원들의 능력 개발도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 교원들이 부단히 자기 계발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의미이다. 그럼에도 현실에서 승급이나 자신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은 상급 학위과정에 진학하는 방법 외에는 없다.

III. 한국어교육의 과제 및 제언

위에서 몇 가지 사항에 대해 실태를 과거와 현재 중심으로 제시하였고, 중간 중간 간단히 생각해 봐야 할 점들도 언급하였다. III장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단편적인 문제점들을 기반으로 좀 더 세분하여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제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미래지향적 대안을 제언하는 것으로 결론을 삼고자 한다.

우선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 수의 증가’에 대한 점이다. 앞에서 언급한 한국어 학습자 수의 급격한 증가는 초창기의 한국어 학습자 수에 비교했을 경우였다. 아쉽게도 최근으로 가까워지면서 증가율이 현저하게 떨어진다. 점이 문제이다. 2009년을 전후로 외국인 학습자, 특히 유학생의 입국 숫자는 현격히 줄었다. 2008년까지는 매년 40% 이상의 신장률을 보였는데 2009년에는 10%대, 그 다음해는 10% 미만의 신장률을 보이고 있다.¹⁹ 그 이유

19 2011년 12월 31일 현재,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 제공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 유입된 외국인 유학생의 수는 2007년 56,006명, 2008년 71,531명, 2009년 80,985명, 2010년 87,480명, 2011년 88,468명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전체 유학생의 수치로 주요 대상자인 중국인 유학생만을 통계하면 더 명확해 질 것이다. 중국 지역에서 온 유학생들의 경우

를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겠는데 하나는 한국어교육의 외적 요인이다. 이는 2010년 천안함 사건²⁰과 같은 남북한 대치 상황에 대한 불안함을 들 수 있다. 두 번째는 내적 요인으로 한국 정부의 지나친 제한 조건이다. 정부는 지난 4월, 2020년까지 외국인 유학생 유치 목표를 20만 명으로 정하고 적극적으로 유치하겠다는 발표를 했다. 2004년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 종합 방안 [스터디 코리아 프로젝트(Study Korea Project)]’ 수립 당시 세웠던 2010년 5만 명 유치 목표를 2007년에 조기 달성하면서 2008년부터 ‘스터디 코리아 프로젝트 발전 방안’을 통해 2012년까지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연간 10만 명으로 확대하는 목표를 세우며 외국인 유학생 수의 증가 현상을 당연시하였다. 그러나 구체적인 유치 계획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한 예로 인접 국가인 일본의 경우 약 20년 전에 10만 유학생 유치를 목표로 했다가 2010년을 전후하여 외국인 유학생 유치 목표를 30만 명으로 정하고 유학 자격 중의 하나인 일본어 능력 기준을 대폭 낮추거나 아예 없앴 대학들이 증가하는 반면, 한국 정부는 오히려 ‘권장사항’이라는 단서로 대학입학 기준을 TOPIK(한국어능력시험) 3급 이상으로 강화하면서 중국인 유학 희망자가 한국보다는 일본은 택하는 일이 많아진 것이다.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더 늘리기 위해서는 그들이 한국을 선택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들을 제도화하고 제시해야 한다. 예를 들자면 유학생 대상의 학자금 대출이라든지 지역 지자체와의 연계를 통한 저렴한 비용의 숙소 제

(한국계 포함) 2007년 43,252명, 2008년 56,197명, 2009년 63,209명, 2010년 66,635명, 2011년 65,271명으로 파악되었는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던 중국 유학생의 수가 2011년에는 감소했다는 데에 있다.

20 2010년 3월 26일 해군 천안함이 백령도 해상에서 침몰한 사건. 그 외 2009년 11월 10일 대청도 동쪽 약 9km 지점에서 발생한 남북한 해군 간에 일어난 전투가 있으며, 최근 2010년 11월 23일 오후 2시 30분경 대한민국의 대연평도를 향해 북한이 170여 발을 포격한 사건 등이 연이어 발생하였다.

공²¹, 시간제 근로의 완화, 졸업 후 일정 기간 동안의 국내 체류를 허용해서 구직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²² 정부에서 이런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시행함으로써 한국어교육 시장 규모를 확대시켰을 때 다음 단계인 한국어교육학이 발전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다음으로 ‘한국어교육학의 발전 과제’이다. 한국어교육 전반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 바탕이 되는 ‘외국어로사의 한국어교육학’이 발전해야 한다. ‘외국어로사의 한국어교육학’이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다음 몇 가지가 선결되어야 한다.

첫째로 교육과정 운영 방식과 최소 학점에 대한 것이다. 현행 한국어교육학 교과목의 개설과 운영은 법이 정한 영역과 과목명을 따라야 한다. 그러다 보니 학부과정이나 대학원과정에서 개설되어야 하는 과목명도 동일해야 한다. 예시한 과목명을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점은 일단 논외로 한다 하더라도 학부와 대학원과정에서 각 교과목이 다루어야 할 내용들이나 그 내용의 깊이는 반드시 차별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 교육현장에서 보면 엄연히 존재해야 할 내용학적인 깊이나 넓이는 별로 달라 보이지 않는다.²³ 그럼에도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통해 차이를 확인할 방법도, 어느 정도의 차

-
- 21 일본은 2004년 ‘독립행정법인통칙법(獨立行政法人通則法)’이라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공적인 기반을 확보한 후, 문부과학성, 국립대학, 일본육영회, 유학생 관련 공익법인 기관을 일원화하여 ‘일본학생지원기구(Japan Student Services Organization: JASSO)’를 설립하였다. 학자금, 보험, 기숙사 관리, 장학금 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매년 전 세계에서 일본 유학설명회를 개최하기도 하며 각 대학의 유학 관련 정보의 제공, 사립대학의 경우도 유학생 수에 따라 일정 규모의 경상비 보조도 하고 있다.
- 22 현재, 시간 외 근로는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D-4, D-2 비자 모두 입국 후 6개월이 경과하면 주당 20시간 범위 내에서 허용하고 있으나 좀 더 완화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졸업 후 구직을 위해 D-10 비자를 발급하여 6개월 단위로 최대 2년까지 허용은 하지만 절차나 조건이 조금 완화될 필요가 있다.
- 23 연구자가 14~5년간 많은 대학의 대학원에서 강의를 진행하면서 살핀 바 수강생들의 수준이 천차만별이었고, 심한 경우 대학원생이지만 학부 3학년 수준에도 못 미치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대학원과정에 외국인이 다수 입학함으로써 내국인 및 외국인 간 격차도 컸다.

이를 전제해야 하는지도 알 수 없다. 우선 과목명을 수정하지 않더라도 예시 과목 중 학부과정에서 개설되어야 하는 과목, 대학원과정에서 개설되어야 하는 과목이 구분되거나, 아니면 역으로 학부과정과는 달리 대학원과정에서는 개설되지 말아야 할 과목, 대학원에서 필요해서 개설은 하지만 수강해도 자격증 취득을 위한 과목으로는 인정하지 않는 과목 등으로 구분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한국어교육개론’같은 과목이 과연 대학원과정에서 필요한지, 국어학개론, 언어학개론 등도 마찬가지다. 교과목명도, 내용적 차이도 재고되어야 한다.

그 다음으로 과목을 담당할 교사(교원)을 양성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시수를 상정해 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일본어 교사의 경우 최소 600시간 이상의 관련 교과목을 이수해야 한다고 한다.²⁴ 한국어교육 전공의 경우는 학부 기준 45학점 이상($45\text{학점} \times 15\text{주} = 675\text{시간}$)을 이수하면 한국어 교원 2급 자격증을 받고²⁵, 대학원의 경우 18학점 이상($18\text{학점} \times 15\text{주} = 270\text{시간}$)을 이수하면 역시 한국어 교원 2급 자격증을 받는다. 그러다 보니 대학원 입학생이 학부에서 유사전공을 하지 않은 경우 내용적인 측면에서의 결핍이 실제 교육 현장 등에서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낸다.²⁶ 더욱이 단기양성과정의 경우는 이수 시간과 수강 자격 조건 측면에서만 보아도 더욱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단기과정은 120시간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되고, 학제를 전제로 하지 않으므로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면 수강 및 시험 응시가 가능하다. 자격시험을 통해 교원자격증을 부여받는다 하더라도 과연 120시간, 각 교과목별로 보면 그 적은 시수로 과연 영역별 지도 준비가 이루어

24 최정순(2011: 76) 참조.

25 부전공의 경우 21학점을 이수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 국어국문학과나 국어교육과 학생의 경우 3영역과 5영역에서 4과목만 들으면 된다.

26 예를 들어 발음 지도나 쓰기 지도의 경우, 실제 교육 현장에서 발음의 진단이나 교정 등에서 적절한 대응을 못하는 교사를 발견할 수 있고, 쓰기 지도에서도 학습자 쓰기 결과물에 대한 피드백도 문법적 오류나 띄어쓰기 정도의 지적에 머물고 글 자체의 조직 등에 대해서는 거의 시도를 안 하거나 못하는 경우 역시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어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²⁷ 방법은 이러한 단기양성과정을 본 자격증 대상에서 분리하여 폐지하거나 다른 용도로의 전환을 고려해야 한다. 아니면 이수해야 하는 시수를 최소 400시간, 혹은 일본의 경우처럼 600시간 이상으로 확대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둘째로 4영역, 문화교육 부분의 확대 또는 강화와 5영역 수업 참관과 실습 과목 역시 수강 자격 기준이나 참관 및 실습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개발 제공되어야 한다. 문화교육을 통해 문화 자체에 대한 이해와 문화 해석의 능력, 타문화의 이해 및 문화 간 의사소통 능력을 배양시켜야 한다. 그럼에도 현 수업 시수 및 학점은 주전공의 경우 3영역이 24학점인 반면 문화 영역은 6학점에 그치며, 게다가 문화와 문학이 같은 영역에 배정되어 있으므로 문화 영역의 경우 3시수조차 채우기 힘들다. 이렇듯 교과목의 시수 배정이 현실과는 떨어져 보이는 불균형성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의 모색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제1영역(한국어학), 제2영역(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 그리고 제3영역(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론) 및 제4영역(문화 및 문학) 중에서 일정 과목을 기초 필수 과목으로 정해서 반드시 이수하게 하고, 그 외 심화교과목(가칭)을 균형에 맞게 시수 등을 재설정하여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아울러 교직 과목의 추가 배정도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 ‘교육’ 그리고 ‘교사/교원’을 전제한다면 최소 과목이라도 추가 배정하여 필수 이수 과목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 학부 기준 45학점 이상의 현행 제도에 교직 관련 과목의 추가를 강력히 제안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자격을 갖추게 하기 위한 교육과정 및 자격증 제도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셋째로 대학원 학위논문의 양산에 대한 문제점 인식과 대안 마련이 절실하다. 전국적으로 한국어교육을 전공할 수 있는 학부 학과가 설치된 대학은 20여 개 정도에 이르며, 2011년 기준 한국어교육 관련 석사/박사 학위

27 단기양성과정의 120시간에 대한 영역별 시수 구분 예시는 [참고자료 2] 참조.

논문을 배출한 대학원은 82개 대학에 달한다.²⁸ 최근 4년간의 통계를 보면 2011년 631편(석사 606편, 박사 24편), 2010년 425편(석사 414편, 박사 11편), 2009년 331편(석사 317편, 박사 14편), 2008년 258편(석사 245편, 박사 13편) 등으로 급증하는 추세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학부 동일 전공에서의 연계 없이 대학원 진학 후 한국어교육 관련 18학점의 학점 이수로 과연 어느 정도의 이론적 탐구와 이의 응용이나 적용 등을 통한 질 높은 연구논문이 작성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²⁹ 대학원을 통한 교원 양성 및 석사학위 소지자의 양적인 팽창 못지않게 질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반성적인 분석과 검토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연구를 일차적 목적으로 해야 할 대학원 교육과정이 자격증을 획득하기 위한 도구로 전락되고 있지는 않은지 현 상황에 대해 정부와 연구자, 관련 학과 교수들은 심각히 고민해야 한다.³⁰

넷째로 한국어교육 전공학과는 교육과정 편성의 차별화가 필요하다. 한국어교육을 담당하는(실제로는 교원자격증을 심사하고 관리하는) 기관에서 과목명이나 학과명을 통제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각급 현장에서 요구하는 것, 이를테면 지역별 수요와 상황에 맞는 것들에 대해 충분한 조사나 분석을 토대로 현지 수요나 요구에 맞게 교과목이나 교육과정이 설계될 수 있도록 자료나 정보 제공을 하는 역할로의 전환이 절실하다. 각 지역의 대학들은 각

28 최정순·윤지원(2011: 59)참조. 지난 10여 년 간(2000년부터 2011년까지)의 통계였는데 총 82개 대학의 대학원에서 한국어교육 주제/전공의 논문이 2,433편이 발표되었으며, 경희대 280편, 이화여대 227편, 한국외대 193편, 연세대 279편, 고려대 155편, 한양대 128편, 부산외대 112편, 상명대 97편, 서울대 90편 정도였다. 이들 대학들은 한 대학 안에 여러 대학원에 한국어교육전공이 개설된 대학들이다. 경희대의 경우 두 개의 캠퍼스에 일반대학원 교육대학원, 특수대학원이 있고, 이화여대 역시 일반대학원, 국제대학원, 교육대학원, 외국어교육대학원 등이 있고, 연세대도 일반대학원, 언어정보학협동과정, 한국학협동과정, 교육대학원 등으로 대학원과정이 세 곳 이상이 개설되어 있다.

29 전일제 학생 신분인 아니라 현장 교육을 병행하는 경우, 그리고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한국어 구사 능력 등을 고려하면 우려는 좀 더 깊어질 수 있다.

30 한 걸음 더 나아가 단기과정만이 아니라 대학원 18학점 이수에 의한 한국어 교원 2급 자격증 부여도 3급으로의 하향 조정(또는 폐지)을 하는 방안을 줄고(2012)에서 제안한 바 있다.

각이 처한 상황적 특수성이나 현실성을 고려하여 그에 맞는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특성화된 전문 인력을 양성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다섯째로 현장에서 활동하는 교원 대상의 자기 개발과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원 보수교육/재교육의 실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한 기관에 소속되어 수업에만 열중하다 보면 새로운 이론을 접할 기회가 적거나 스스로 교수법을 연구 개발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 물론 상급 학위과정으로 진학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으나, 현실적으로 경제적·시간적인 면에서 난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1~2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보수교육 이수를 의무화 한다거나, 승급의 전제 조건으로 일정 시간 재교육을 제시하는 방법을 제안할 수 있다. 보수교육이나 재교육은 정부 담당 기관, 또는 정부가 권역별 위탁교육기관을 선정하여 담당하게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언급하고자 하는 또 다른 측면에서의 과제와 문제점은 한국어교육 현장에서의 지나친 시험 위주의 수업과 교육과정 편성이다. 입학 및 졸업에 대한 기준을 TOPIK 3급과 4급으로 정하고 이를 ‘권장사항’이라 표현을 했지만, 일선 기관에서는 단기간 내에 합격을 하게 하여 연수 기간을 최소화하려다 보니 시험 준비 위주로 수업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 보니 일정 급수에 합격은 하더라도 실제 한국어 능력은 해당 급수에 훨씬 못 미치는 기능적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 외국인 유학생의 입학과 졸업에 대해서는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게 하고 나름의 교육과정을 각 대학의 현실에 맞게 탄력적이고 융통성 있게 운영하도록 권장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전국의 모든 대학이 획일화된 교육과정으로 운영되고 동일한 결과를 기대할 필요는 없다. 자율적 정화와 시장 경제 체제가 오히려 효율적인 교육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모른다.

* 본 논문은 2012.10.31. 투고되었으며, 2012.11.11. 심사가 시작되어 2012.11.25. 심사가 종료되었음.

참고문헌

- 강승혜(2011), 「한국어 교원 양성 과정의 현황과 과제」, 『새국어생활』 제21권 제3호, 국립국어원, pp. 83~97.
- 최정순(2011), 「주요 국가의 외국인 대상 자국어 교육을 위한 교사 자격 제도 운영에 관하여」, 『새국어생활』 제21권 제3호, 국립국어원, pp. 59~82.
- 최정순(2012), 「한국어교육 연구의 균형화와 전문화를 위하여」, 『새국어교육』 제92호, pp. 367~391.
- 최정순 외(2007), 「해외인적자원 유치 확대 및 활용을 위한 유학생 지원 전담기구 설립방안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인적자원개발 정책연구 2007-지정-30.
- 최정순·윤지원(2011), 「한국어교육 연구 동향 분석」, 『인문연구』 제63호,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pp. 53~90.

[기타 참고 홈페이지 등 관련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글로벌인재육성과(2010), “외국인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표준업무처리요령”.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http://www.immigration.go.kr>

세종학당 홈페이지 <http://www.sejonghakdang.org/>

행정안전부 <http://www.mopas.go.kr>

참고자료 1 국어기본법 및 동 시행령 [별표 1]

❖ 한국어 교원 자격 취득에 필요한 영역별 필수이수학점 및 이수 시간(제13조 제1항 관련)

번호	영역	과목 예시	대학의 영역별 필수이수학점		대학원의 영역별 필수 이수 학점	한국어 교원 양성 과정 필수 이수 시간
			주전공/복수전공	부전공		
1	한국어학	국어학개론, 한국어음운론, 한국어문법론, 한국어어휘론, 한국어의미론, 한국어화용론, 한국어사, 한국어어문규범 등	6학점	3학점		30시간
2	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	응용언어학, 언어학개론, 대조언어학, 사회언어학, 심리언어학, 외국어습득론 등	6학점	3학점	3~4 학점	12시간
3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론	한국어교육개론, 한국어교육과정론, 한국어평가론, 언어교수이론, 한국어표현교육법(말하기, 쓰기), 한국어이해교육법(듣기, 읽기), 한국어발음교육론, 한국어문법교육론, 한국어어휘교육론, 한국어교재론, 한국문화교육론, 한국어한자교육론, 한국어교육정책론, 한국어번역론 등	24학점	9학점	9~10 학점	46시간
4	한국 문화	한국민속학, 한국의 현대문화, 한국의 전통문화, 한국문학개론, 전통문화현장실습, 한국현대문화비평, 현대한국사회, 한국문학의 이해 등	6학점	3학점	2~3 학점	12시간
5	한국어교육 실습	강의 참관, 모의 수업, 강의 실습 등	3학점	3학점	2~3 학점	20시간
	합계		45학점	21학점	18학점	120 시간

참고자료 2 단기양성과정 영역별 필수이수시간 개설 현황

기관명: OO 한국어교육원

영역	과목명	시간	비고	영역	과목명	시간	비고
1. 한국어학	한국어학개론	2		3.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론	말하기교육론	4	
	한국어음운론	6			듣기교육론	4	
	한국어문법론	8			읽기교육론	4	
	한국어어휘론	4			쓰기교육론	4	
	한국어사	2			한국어교재론	4	
	한국어화용론	4			한국어평가론	4	
	한국어어문규범	4			소 계	46	
	소 계	30					
2. 일반 언어학 및 응용언어학	언어학개론	4		4. 한국문화	한국문화의 이해	4	
	대조언어학	4			한국문화의 이해	4	
	외국어습득론	4			한국사회의 이해	4	
	소 계	12			소 계	12	
3. 외국어로 서의 한국어 교육론	한국어교육학개론	6		5. 한국어 교육실습	강의참관	10	
	한국어문법교육론	4			모의수업/수업실습	10	
	한국어어휘교육론	2			소 계	20	
	한국어발음교육론	2		총 이수시간 (120 시간)			
	한국어교육과정론	4					
	한국어교육방법론	4					

한국어교육 제3의 중흥기에 돌아본 교육 현황과 해결 과제

최정순

본고는 한국 내 한국어교육의 현황을 살피고 문제점을 제기한 후 그에 대한 대안을 제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고에서는 먼저 한국어교육의 성장 과정과 한국어학습자 수의 증가를 수치로 제시함으로써 짧은 시간 동안 급격한 성장을 했음을 확인한다. 그리고 한국어 교육의 중심에 있는 교원의 자격 부여 제도와 관리 등에 대해 몇 가지 제약점을 제시한다. 그러면서 이러한 양적인 발전만큼 질적인 발전도 이루어졌는가에 대해 의문을 갖고 한국어교육 전반-학습자, 교수자 관련 문제들에 초점을 두고 고려해야 할 점과 대안을 대략적이거나 살펴본다.

한국어교육의 발전은 결국 한국어학습자 수의 증가와 밀접하다. 따라서 한국어 학습자 수를 늘이기 위한 방안을 제언한다. 특히 일정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학습을 하는 유학생을 중심으로 대안을 제언하였다.

그리고 한국어교육학의 발전과 교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국어기본법에서 제시하는 교육과정의 보완 및 자격증 부여 기준에 대해 강화할 것을 제안하면서, 부분적으로는 학부과정과 대학원과정의 교과목명의 차별화 및 내용 깊이의 차별화가 필요함을 주장한다. 아울러 자격증과 관련하여 수업 시수 및 수강 교과목의 취약점을 근거로 석사학위과정의 자격 부여의 축소 및 폐지를 제안했다. 나아가 '교원'으로서의 자질과 소양의 함양을 위해 교직 과목의 추가 이수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현재 활동 중인 교원의 재교육을 제안했으며, 시험 준비 위

주의 한국어교실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수업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규제보다 각 대학의 자율적 운영을 권장해야 함을 제안했다.

핵심어 한국어교육, 한국어 교원, 교육과정, 한국어교육 현황, 자격제도

ABSTRACT

Current Issues in Teaching Korean as a Foreign Language

Choe, Jeong-soon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indicate problems after understanding the current situation of Korean education in Korea and makes an alternative proposal. First, it verifies the rapid growth of Korean education in a short period of time by presenting figures for developing process and increasing of the number of Korean learners. And it presents some limitations for granting teaching certificate and management system which play central roles in Korean education. It checks approximately the points to be considered and alternatives for overall Korean education - focusing on related issues of learners and instructors with a question whether the quality has been improved as much as quantity.

Korean education's development is closely related to the rise of Korean learners in the end. Therefore measures for increasing the number of Korean learners is proposed, particularly associating with international students who study intensively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For the development of Korean education and intensification of teacher's professionalism, it suggests complementing curriculums and strengthening certification criteria as much as the fundamentals of Korean Act demand, specifically arguing the need for differentiation of course names and depth of contents between undergraduate and graduate schools. As for the teaching certificate, it suggests to reduce or abolish to grant to the Master degree graduates for the lack of hours of lessons and courses. It suggests also adding more courses to develop the teachers' quality and knowledge.

Finally, it proposes current active teachers to have further education and indicates the problem of exam-oriented Korean lessons. In order to

have Korean learning classes work more properly, the institutions should be more self-governing being away from Government's interventions.

KEYWORDS Teaching Korean as a Foreign Language, Korean Language Teacher, Curriculum, Current Issues in Teaching Korean as a Foreign Language, System for Certificate of Korean Language Teacher